

주요용어 : 인간관계훈련, 인간관계, 자아정체감

##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이 간호대학생의 인간관계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윤연희\*, 고명숙\*\*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형제, 친구 등과 여러 형태의 인간관계 속에서 성장·발달하므로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자신의 인생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보편적으로 만족스럽고 효율적인 인간관계의 경험은 개인에게 건전한 성격발달과 긍정적인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지만 (Sullivan, 1953) 불만스럽고 비효율적인 인간관계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형득, 1992). 그러나 효율적인 인간관계는 저절로 습득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어서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학교교육에서도 효율적인 인간관계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은 대학교육에서도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치열하고 획일적인 입시 경쟁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교사나 학생들 간에 참다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관계만을 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입학이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인정되고 강요됨으로써 자기 자신과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를 등한시해 온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급속한 산업사회로의 돌입과 서구 문화의 무비판적 유입으로 겪는 기존문화의 붕괴, 가치혼란 등이 청소년들의 가치관 정립과 인간관계 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이도희, 1998).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면서 새로운 환경의 적응이라는 과제와 함께 그 때까지 익숙해 온 지식과 타율에 의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생활방식을 진화과 함께 스스로를 책임지는 자립적이고 능률적인 생활방식을 요구하는 사회적 환경변화 내에서 혼

란을 겪을 수 있다. 이 혼란은 대학생들 자신의 역할 변화와 그에 따른 적응문제, 확대된 교우관계, 진로문제, 자신의 정체감과 인생관 및 사회적 가치관 등을 정립해야 하는 발달 과업 문제 등 다양한 것이 될 것이다(Erikson, 1963; 서봉연, 1975; 소영원, 1997; 원호택, 1988).

간호학문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으로 간호사와 환자, 간호사와 의료인, 간호사와 타부서직원 등간에 상호 신뢰하는 인간관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있지 않으면 효과적인 치료 및 목표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Travelbee, 1971; Leppa, 1996).

간호사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Leppa(1996)는 기존의 인간관계술에 대한 교육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와 환자와의 상호작용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였으며 인간관계에 대한 지적인 이해는 하고 있으나 간호 상황에서 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인간관계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예비 간호사로서의 교육과정에 있는 간호대학생들은 타 전공학생들에 비해 동일한 기간 내에 이론교육과 임상실습을 병행해야하므로 교과 학습량이 많아 여가선용이나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오히려 임상실습현장의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직종과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교육은 대다수 지식 중심적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을 통한 심리적, 사회적 부적응이나 가치관 혼란, 자아정체감 형성 장애 등의 개인 내면을 위한 문제는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노월애, 1990).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에 다양한 대상자나 보호자 뿐 만 아니라 다른 의료종사자들과의 치료적 또는 협조적인 관계를 통하여 대상자의 육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하므로 대학생활에서 효율적인 인간관계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정립해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모자녀교육(PET) 강사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효율적인 인간관계의 형성과 발달은 의도적인 학습경험과 스스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습득이 가능하므로(이형득, 1985) 간호대학생에게 실시하는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은 이들에게 보다 성숙된 인간관을 가질 수 있게 도와 줄 것이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의료기관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보다 잘 적응함으로써 대상자들의 다양한 요구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유능한 전문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국민 건강 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ordon(1970)의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을 간호대학생에게 실시하여 이 훈련이 미치는 영향 및 그 효과의 지속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이 간호대학생의 인간관계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효과의 지속정도를 파악하고자 함에 있다.

## 3.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제1가설 :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훈련 직후에 측정된 인간관계의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제2가설 :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훈련 직후에 측정된 자아정체감의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제3가설 :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훈련 4개월 후에 측정된 인간관계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제4가설 :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훈련 4개월 후에 측정된 자아정체감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 4. 용어 정의

### 1) 인간관계

인간관계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역동적이고도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패턴(이형득, 1986)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Schlin과 Guemey(1971)의 인간관계 변화척도

(Relationship Change Scale)를 우리 실정에 맞게 이형득과 문선모(1980)가 번안한 것으로 5점 척도 25개 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뜻한다.

### 2) 자아정체감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되는 것으로 남과 다른 나의 독특성을 자각하고 변화되는 환경과 인간 속에서도 계속 자신을 통합해 가면서 일관성을 갖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자신에 대한 현실감(Erikson, 1963)으로 본 연구에서는 Dignan(1965)의 자아정체감 척도(Ego Identity Scale)를 서봉연(1975)이 번역하고 박아청(1984)이 수정한 도구로 각각 6문항으로 된 8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 상에서 측정된 점수를 뜻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효율적인 인간관계와 자아정체감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간호대학생들에게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을 시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의 유사 실험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시내에 소재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일 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학생 30명이며 이 중 학생 15명을 실험군으로 하고 나머지 15명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한 집단을 15명 정도의 참여자로 하는 이유는 그 이상이 되면 체험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훈련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선정배경은 두 군이 소속된 대학은 인성교육을 주당 4시간씩 실시하고 있는 대학으로서 연구대상의 동질성을 유지하고자 일 개 대학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3.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에게 Gordon(1970)의 P.E.T.훈련 과정을 일주일에 한번 실시하며 매번 3시간씩 8주 동안 교육·훈련하여 총 훈련시간은 24시간 실시한 프로그램을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이라고 한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연구자 중 한 명이 먼저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과정을 거쳐 강사자격을 취득한 후에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훈련시작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주 1회씩 8주 동안이었으며 매 훈련시 소요시간은 3시간이었다. 훈련방법은 강의, 토의, 역할놀이, 워크북실습, 사례발표 등이었다. 각 주의 훈련주제는 <표 1>과 같다.

<표 1> 훈련내용

주	주 제
1	네모폴 수용도식, 의사소통 걸림돌 이해하기
2	상호성장을 돕는 기술
3	반영적 경청의 기술
4	나 - 전달법
5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의 수정
6	갈등해결
7	문제해결 연습(제 3의 방법)
8	가치관 대립에 대처하기

#### 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2001년 4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로 먼저 두 군 모두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실험군에만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을 8주간 실시하였다. 사후검사는 훈련직후, 훈련 4개월 후 두 번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실시하였다.

#### 5. 연구도구

##### 1) 인간관계 변화척도

이 척도는 Schlin과 Guemey(1971)의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이행득과 문선모(1980)가 번안한 척도로서 도구 개발 당시의 Cronbach's  $\alpha=0.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7$ 이었다. 이 척도는 총 25문항,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7가지의 하위영역이 있다. 하위영역에는 만족감(satisfac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신뢰감(trust), 친근감(intimacy), 민감성(sensitivity), 개방성(openness), 이해성(understanding)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 2) 자아정체감 척도

이 척도는 Dignan(1965)의 Ego Identity Scale을 서봉연(1975)이 번역하여 제작한 질문지를 박아청(1984)이 수정한 것이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alpha=0.85$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80$ 이었다. 각 각 6문항으로 된 8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 상에서 채점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위 영역은 안정성(stability), 목표지향성(goal-direction), 독특성(uniqueness), 대인역할기대(interpersonal role expectation), 자기수용(self-assertiveness), 자기존재의식(sense of self),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산처리 하였다.

- 1)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 통계를 사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chi^2$  검증으로 하였다.
-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인간관계와 자아정체감의 동질성 검증은 Wilcoxon rank sum test로 검증하였다.
- 3)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에 참여한 직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간관계와 자아정체감 점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Wilcoxon rank sum test를 실시하였다.
- 4)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에 참여한 4개월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간관계와 자아정체감 점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Wilcoxon rank sum test를 실시하였다.

#### 7. 연구의 제한점

- 1)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확대하여 해석을 할 수 없다.
- 2) 실험설계상 실험의 확산을 우려하여 사전 모의시에 훈련내용에 대한 두 그룹간의 대화나 의견을 나누지 않도록 부탁하였지만 이 문제점을 배제할 수 없었다.
- 3) 본 훈련은 체험학습이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험집단의 크기가 10~15명 정도가 적절하나 연구 분석을 하기에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0)

특성	구분	실험군 실수(%) (n=15)	대조군 실수(%) (n=15)	전체 실수(%) (n=30)	X <sup>2</sup>	P
나이	19세	4(26.7%)	5(33.3%)	9(30.0%)	3.111	.375
	20세	9(60.0%)	9(60.0%)	18(60.0%)		
	21세	2(13.3%)	0(0.0%)	2(6.7%)		
	22세	0(0.0%)	1(6.7%)	1(3.3%)		
출생 순위	첫째	10(66.7%)	9(60.0%)	19(63.3%)	1.053	.591
	둘째	5(33.3%)	5(33.3%)	10(33.3%)		
	셋째	0(0.0%)	1(6.7%)	1(3.3%)		
부모와 동거	예	13(86.7%)	10(66.7%)	23(76.7%)	1.677	.195
	아니오	2(13.3%)	5(33.3%)	7(23.3%)		
종교	개신교	6(40.0%)	11(73.3%)	17(56.7%)	4.471	.215
	천주교	1(6.7%)	0(0.0%)	1(3.3%)		
	불교	2(13.3%)	2(13.3%)	4(13.3%)		
	무교	6(40.0%)	2(13.3%)	8(26.7%)		
	기타	0(0.0%)	0(0.0%)	0(0.0%)		

III. 연구 결과

군은 개신교인 경우가 11명(73.3%), 불교는 2명(13.3%), 무교는 2명(13.3%)으로 나타났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실험군의 연령분포는 19세 4명(26.7%), 20세 9명(60.0%), 21세 2명(13.3%)이었다. 대조군은 19세 5명(33.3%), 20세 9명(60.0%), 22세 1명(3.3%)으로 나타났다.

출생 순위에서 실험군은 첫째가 10명(66.7%), 둘째가 5명(33.3%)이었고, 대조군은 첫째가 9명(60.0%), 둘째인 경우가 5명(33.3%), 셋째인 경우가 1명(3.3%)이었다.

현재 부모와 동거 여부는 실험군은 13명(86.7%)이 동거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10명(33.3%)은 동거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종교는 실험군에서 개신교가 6명(40.0%), 천주교는 1명(6.7%), 불교는 2명(13.3%), 무교는 6명(40.0%)이었으며, 대조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 인간관계 및 자아정체감 동질성 검증

실험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간관계와 자아정체감에 차이가 있는지 통계 검증을 한 결과 두 그룹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

3. 가설검증

1) 제1가설 :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훈련 종료 직후에 측정된 인간관계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본 가설의 결과는 <표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실험군의

<표 3> 훈련 전 인간관계와 자아정체감의 동질성 검증

(n=30)

변수	실험군(표준편차)	대조군평균(표준편차)	Z	P
인간관계	43.033(43.954)	44.866(46.437)	-.844	.399
자아정체감	59.433(61.085)	60.400(62.210)	-.175	.861

&lt;표 4&gt; 훈련 실시 직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간관계 비교 (n=30)

변수	그룹	평균	표준편차	Z	P
인간관계	실험군	57.233	58.407	-1.965	.049*
	대조군	43.966	45.959		

\*p&lt;.05

&lt;표 5&gt; 훈련 실시 직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정체감 비교 (n=30)

변수	그룹	평균	표준편차	Z	P
자아정체감	실험군	76.200	77.849	-2.191	.028*
	대조군	60.900	62.563		

\*p&lt;.05

&lt;표 6&gt; 훈련 실시 4개월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간관계 비교 (n=30)

변수	그룹	평균	표준편차	Z	P
인간관계	실험군	45.933	47.945	-.634	.298
	대조군	46.077	47.548		

&lt;표 7&gt; 훈련 실시 4개월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정체감 비교 (n=30)

변수	그룹	평균	표준편차	Z	P
자아정체감	실험군	60.445	62.184	-.292	.642
	대조군	61.423	62.321		

\*p&lt;.05

인간관계 점수는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 실시 직후의 평균이 57.233이고, 대조군은 43.966으로 나타나 실험군의 인간관계 점수가 대조군보다 13.267이 높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1.965$ ,  $p=.049$ ). 따라서 제1가설은 지지되었다.

- 2) 제2가설 :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훈련 직후에 측정된 자아정체감의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본 가설의 결과를 <표 5>에서 살펴보면 실험군은 평균이 76.200으로 나타났고, 대조군은 평균이 60.900( $z=-2.191$ ,  $p=.028$ )으로 나타나 실험군의 자아정체감 점수가 대조군보다 평균 15.3이 높으며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제3가설 :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에 참여한 실험군은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훈련종료 4개월 후에 측정된 인간관계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본 가설의 결과를 <표 6>에서 살펴보면 실험군은 평균이 45.933으로 나타났고, 대조군은 평균이 46.077( $Z=-.634$ ,  $p=.238$ )로 두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4) 제4가설 :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에 참여한 실험군은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훈련종료 4개월 후에 측정된 자아정체감 점수가 더 높을 것이라는 실험군은 평균이 60.445, 대조군은 61.423( $Z=-.292$ ,  $p=.642$ )으로 두 군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 IV. 논의

인간관계 훈련의 목적이 자기 이해가 깊어지고 타인의 행동이나 성격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며 그 결과 인간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본 연구도 이와 같은 목적하에 간호 대학생들에게 훈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인간관계 및 자아정체감 정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는데 이 결과는 본 훈련과 동일한 훈련을 어머니들에게 실시한 후 그들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높게 변화한 김재연(1992)의 연구와 16주의 훈련을 시킨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Tomstone, Christine Ann(198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며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인간관계로서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인간관계의 정립을 통하여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해 나갈 수 있다(이형득, 1992). 따라서 개인이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양과 질에 따라서 각 개인은 그 독특한 자아를 형성하고 발달시킬 뿐 아니라 자아를 존중하게 되고 건전한 인격 발달도 달성할 수 있음을 상기할 때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준 훈련 전과 후에 인간관계의 긍정적 변화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훈련, 즉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에 관한 집단상담 후 인간관계의 변화를 조사한 정재기(1998)의 연구결과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여 인간관계는 훈련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한편 자아정체감이란 자기 자신이 동질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한 단순한 인식 이상의 것으로 Erikson(1963)에 의하면 개인의 자아가 그의 인격 체계, 즉 id, ego, superego를 통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질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동시에 자신의 자아 통합과의 방식이 자기가 타인에게 주는 개인적(존재적) 의미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견지해 나가는데 유효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인간관계 훈련전 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본 연구 결과는 의미가 있었다. Waterman(1985)에 의하면 대학생의 경우 1학년생보다 4학년에서 강한 정체감을 가지며 이 시기에 정체감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정체감 확립에 도달할 확률이 높다고 한 바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1학년 시절에 자아정체감 관련 훈련을 받으면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4학년 정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의문에 대한 자아정체감의 발달 상태가 1학년 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여진다. 또한 자아정체감은

서서히 형성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대학생인 경우 장애에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려는 의식이 강하므로(강봉규, 1995)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이 이런 의식에 고무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가설 3인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에 참여한 실험군은 훈련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훈련 4개월 후 인간관계 효율성이 더 높을 것이다’와 가설 4인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에 참여한 실험군은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훈련 4개월 후에 측정된 자아정체감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이 결과는 P.E.T.훈련 4개월 후 검사에서 실험군의 대인관계를 촉진시켜 주었다는 Therrien(1979)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었다. Therrien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부모들이 자녀와의 갈등적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에 임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부모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높아져 효과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이 대학 신입생인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이므로 전공과목에 대한 이해도 미숙한 상태이며,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아 간호현장에서의 인간관계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에 기인하지 않았으나 유추되었다. 또한 정체감 지위의 안정성을 비교하였을 때, 위기를 해결하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1년 이상 걸린다고 한 Adams와 Fitch(1982)의 주장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훈련 4개월 후에 측정된 인간관계와 자아정체감 점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대학생 시기에는 논리적 기억력과 추상적 사고는 발달되나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면 현실과 실체를 떠난 추상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강봉규, 1995)고 했으므로 훈련 직후보다 훈련 4개월 후에는 훈련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성인교육은 행동이 내면화 될 때까지 재 강화교육이 필요하나 재 강화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효과가 지속되지 않았을 것(Marquis & Huston, 2000)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연구로서 훈련기간은 본 연구와 같은 8주간이었지만 8주 동안 단 두 번의 훈련만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살펴 본 Hershenson(1981)의 연구에서 인간관계의 효율성이 대조군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을 볼 때 훈련의 횟수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사용되었다.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선행연구들을 보면 훈련 실시 직후의 결과만 있었으며 그 결과는 긍정적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성인의 행동변화는 지속되기 어려우며 이를 계속적

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강화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본 훈련 프로그램은 대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신입생에게 대학생활에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현상학적인 물음을 갖게 하고, 이를 기초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며 앞으로 신입생의 대학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과 상담활동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탐색의 시간을 통해서 적응력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므로 정체감의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이 간호대학생의 인간관계와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정하에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일 대학교의 간호학과 1학년 30명 학생 중에서 15명을 실험군으로 나머지 학생 15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훈련의 효과를 보았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에서 실시되는 인간관계 관련교과목들은 이론적 지식에 주로 치중하여 학생들에게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증진 시키는 일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임상실습이 이루어지는 간호현장에서는 실제의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교육의 맹점을 보완한 본 연구의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은 그 목적에 실제 경험하게 하는데 있었으므로 피험자들에게 훈련받은 기술을 스스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용하여 보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음 모임에서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경청하면서 배우도록 유도하여 긍정적인 결과, 즉 간호대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효율적인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훈련의 효과가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을 주당 3시간씩 8주 총 24시간 훈련을 실시하여 이를 8주 종료시점과 4개월 후 효과를 본 것이다. 그 결과 훈련 직후의 인간관계와 자아정체감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훈련 종료 4개월 후의 추후점사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이 훈련의 반복훈련

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훈련 종료 후 2개월, 4개월, 6개월 등의 시점에서 실시하여 반복조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임상실습에 임하고 있는 상급학년이나 간호사들 혹은 의료종사자들에게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을 실시해 볼 것을 제언한다.

셋째, 인간관계 효율성 훈련은 심리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후속연구를 통하여 대상자의 변화와 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실시되기를 제언한다.

## 참 고 문 헌

- 강봉규(1996). *교육학*. 서울: 형성출판사.
- 노월애(1990). *일 간호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1984). *아이덴티티의 탐색*. 서울: 정민사.
-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일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소영원(199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과 적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재기(1998). *집단 상담이 교회학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호택(1988). *서울대생의 스트레스 실태조사*. *서울대학교 학생연구*, 24, 10-12
- 이도희(1998). *심성개발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형득(1985). *상담면접의 기초*. 서울: 중앙 적성 연구소.
- \_\_\_\_\_(1992). *인간관계 훈련의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임인숙(1998). *대학신입생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이 자아정체감과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dams G. R. & Fitch S. A.(1982). Ego stage and identity status development: A ross-sequence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574-583.
- Dignan, M. H.(1965). Ego Identity &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1, 475-480
- Erikson, E. H.(1963). *Insight & Responsibilit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Inc.
- Gordon, T.(1970). *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Y.: New American Library.

Hershenson M. A.(1981). *A Short-term workshop using transactional analysis to determine educational outcomes as measured by the FIRO-B criterion instrument*.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U.S.A.

Johnson, Christin & Ann(1985). The effects of training in transactional analysis upon th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transactions of graduate students in supervision. Doctoral dissertation, Rutgers University, U.S.A.

Leppa C. J.(1996). Nurses Relationship and Work Group Distruption. *J of Nurse. Adm* 26, 23-27.

Marquis, B. L. & Huston, C. J.(2000). *Leadership Roles and Management Functions in Nursing*. 3rd ed. N.Y.: Lippincott Company.

Sullivan, H. 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W. Norton.

Therrien, M. E.(1979). Evaluating Empathy Skill Training for Parents. *Social Work, sept*, 417-419.

Travelbee(1971). *Interpersonal aspects of Nursing*. 2nd ed., Philadelphia : F. A. Davis. co.

Waterman, A. S.(1985). Identity in the context of adolescence psychology, In A.S. Waterman(Ed), *Identity in adolescence : Processes and contents*. San Francisco, CA: Jessey-Bass.

training program, suggested by Gordon(1970), could help these nursing students with the problem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identification. **Method:** This study was designed using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e subject for this study were thirty nursing students. Fifteen nursing students of the experimental group experienced the Effectiveness Training for 8 weeks (3 hours/week). The effect of Effectiveness Training was measured using Relationship Change Scale devised by Lee, H.D. & Moon, S.M.(1979) and Ego Identity Scale devised by Dignan(1965) which was translated by Seo, B.Y.(1975) Pretest data were collected by the researcher from both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before training. After the end of eight weeks training, posttest data collected from both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Samples were analyzed using SPSS PC+. **Result:** 1. The first hypothesis, "level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the experiment group after 8 weeks will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z=-1.965, p=.049)was supported. 2. The second hypothesis, "level of ego-identity of the experimental group after 8 weeks will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z=-2.191, p=.028)was supported. 3. The third hypothesis, "level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the experiment group will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after 4 months of training"(z=-.634, p=.238)was not supported. 4. The fourth hypothesis, "level of ego-identity of the experimental group will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after 4 months of training"(z=-.292, p=.642)was not supported. **Conclusion:** The Effectiveness Training can be considered as an effective method of nursing student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 ego-identity, because it was proved to help nursing students increase level of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 ego-identity but it was needed to reinforce for continuing of the effect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 ego-identity.

## -Abstract-

Key words : ET train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 - Identity

A Study on the Effects of ET Training for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elf-Identity

Yoon, Yean Hee\* · Koh, Myung Suk\*\*

**Purpose:**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f the effectiveness

---

\*P.E.T. instructor

\*\*Professor. Dept of Nursing, Sahmyook University